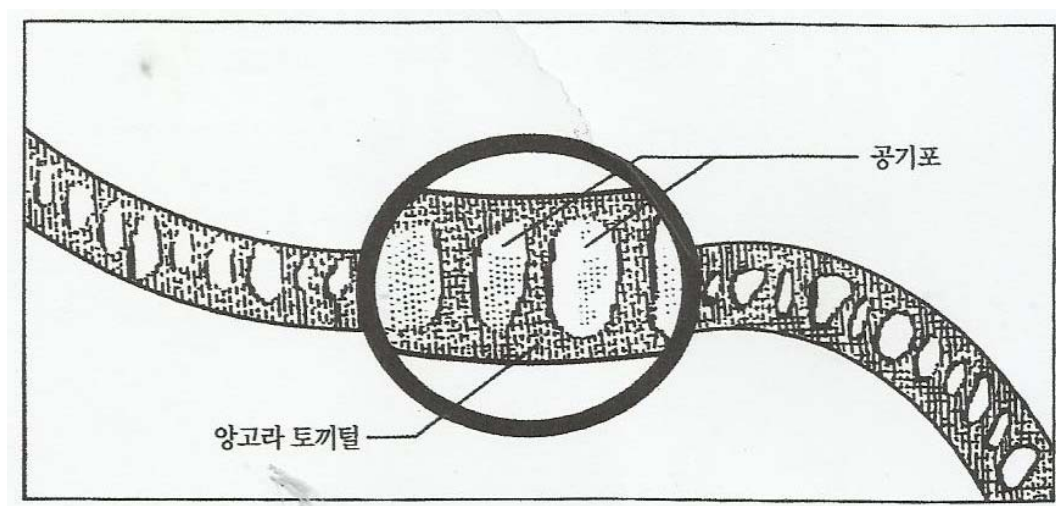


기타 의류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섬유

- 앙고라 토끼털(2) -

앙고라 토끼털도 울과 헤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의 굵기는 12~14 μm 로 캐시미어의 15 μm 와 비슷하며, 일반적인 양모보다도 가늘며, 가는 만큼 부드럽고 가볍다. 헤어는 30 μm 이상으로 때로는 100 μm 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헤어는 제외하고 울만을 채취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앙고라 털이란 그 울만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다.

앙고라 토끼털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은 앙고라 토끼털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털의 내부는 그림과 같이 털 내부에 마치 모수(모 중심의 수세포나 속이 빈 부분)와 같이 생긴 몇 개의 기포가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앙고라 털 내부의 공기포

앙고라 섬유를 양모와 비교하여 보면 비중은 약 20 % 가볍고, 보온력은 약 30 % 정도 크

다. 또한 흡습성은 면과 비교하면 6배가 더 크다. 예를 들면 면제품의 경우 습기가 15 % 정도 함유되면 축축한 느낌을 갖지만, 앙고라 섬유제품은 약 40 %의 습기를 함유하여도 축축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표면의 촉감은 캐시미어 제품에 필적할 정도다. 또한 색상이 순백색이라 염색성이 대단히 좋다.

한편 앙고라 섬유는 양모에 비하여 스케일(scale)이 적으며, 일방향으로 되어 있어 방적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품이 된 다음에도 털이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또한 정전기의 발생이 많아 섬유 표면에 필링(pilling)이 생기기 쉬우나, 이를 역으로 정전기 작용을 이용하여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예방용 서포터(supporters)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의를 만들어 놓으면 건강유지에 효과가 좋다고 찾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앙고라 토끼털은 방모사나 소모사로 혼방되어 주로 니트제품으로 생산되어 여성용 의류제품으로 인기가 있다. 또는 직물로 짜서 재킷이나 코트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모자나 장갑, 양말, 머플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제품 분야는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제품을 만들 때 앙고라 섬유의 혼용률이 100 %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다른 섬유 즉, 양모와 혼방하여 생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모사의 경우 앙고라 섬유 혼방률의 비율이 약 20 % 정도로 소모 변수 Nm 60 까지도 방적할 수 있으나, 보통 소모 변수 Nm 48 이 보통이며, 방모사의 경우는 그 비율이 소모사보다는 더 많고, 이 근래에는 40~70 % 까지도 고율로 혼방하며, 보통 방모 변수 16 Nm 정도가 되도록 한다.

앙고라 토끼는 양처럼 들에 방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작은 칸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어 사육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마리당 채모량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에 300~1000 g 정도가 되는데, 전량을 일일이 사람이 가위로 깎아낸다. 채모는 연 4~5회 반복하여 채모가 가능하며(75~90일 주기), 90일이 지나면 자연 탈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야 하며, 이 90일이 지나면 털의 품질도 저하된다.

양고라 섬유는 동물성 섬유 중에서도 물로 세척하는 전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직접 방적에 투입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이상한 섬유다. 그러나 제품이 된 다음에는 펠트나 오물 등 헐집물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가공은 중요하다.

현재 양고라 섬유의 산지는 프랑스, 캐나다, 독일, 체코, 중국 등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90 %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 (공석봉)